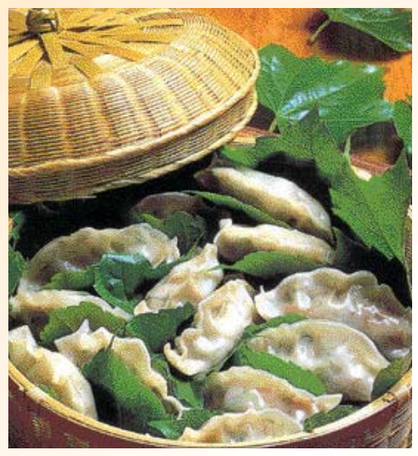
수라상 올리기 시연 모습



규아상

조선 궁중의 맛 광주서 만난다

궁중음식硏 '다섯의 어울림 五味·五色·五美전'… 30일~5월1일 운림제

'고종 황제가 밤참으로 즐겨 드셨던 동치미 냉면은 어떤 맛일까.', '왕과 왕비는 매일 아침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

조선 궁중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전시회가 광주 시민을 찾아온다.

(사)궁중음식연구원(이사장 한복려)이 주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발표회 '다섯의 어울림 오미(五味)·오색(五色)·오미(五美)'전이 오는 30일과 5월 1일(오전 11시~오후 5시)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문화 공간 운림제에서 열린다.

조선 왕조 궁중음식의 계보는 13세 때 덕수궁 주방 나인으로 입궁, 이후 고종과 순종의 음식을 담당했던 1대 기능보유자 한희순 상궁으로 부터 시작된다. 2대는 한상궁으로부터 30년간 궁중음식 조리법을 전수받고 내용을 정리한 황혜성 선생이며 현재는 황선생의 맏딸로 드라마 '대장금'에서 궁중음식을 재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복려 이사장이 3대 기능보유자로 지정돼 있다.

오는 30일 오전 11시30분 열리는 개막 문화 행사 '왕과 왕비의 수라상 올리기'는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다. 수라상에는 각기 다른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12가지 반찬이 오른다. 모든 음식은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진상한 재료로 만드는데, 열두 가지 반찬에는 밥을 먹으며 백성들 형편과 나라 사정을 살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재연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왕과 왕비, 수라 시중을 드는 기미상궁과 수라상궁, 생각시 등으로 분해 직접 조리한 수라상을 올리며 한국어와 영어 해설이 곁들여진다.

한복려 이사장과 회원들, 광주의 음식 명인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발표회는 전시·시연·체험·시식 등 4 부문으로 구성된다.

'궁중의 상차림전'에서는 고종과 순종의 하루 상차림을 통해 조선 시대 궁중의 일상식을 살펴보며 제철 재료를 이용한 계절별 궁중음식상도 전시한다.

'한반도 김치전'에서는 석박지·배동치미·젓국지·오이송송이 등 궁중김치를 기본으로 무청소박이 등 북한 김치, 전어통무김치·갈치석박지 등 각 지역별 김치를 만나게 된다. 또 '삭힘음식전'에서는 김장아찌·대추장아찌·모치젓·농게젓 등 50여종의 장아찌와 젓갈을 전시한다.

고종황제의 동치미 시식 한복려씨 궁중음식 시연

또 죽순채와 궁중떡볶이, 대하찜, 전복 겨자채 등 궁중음식 특강도 마련되며 궁중김치인 감동젓무 시연, 장아찌를 이용한 주먹밥·쌈밥 만들기 체험 및 시식 행사도 갖는다. 고종 황제가 별식으로 즐겨 먹었던 동치미 냉면을 시식하는 코너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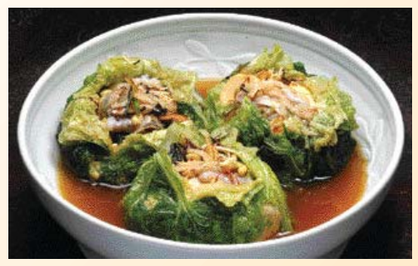
그밖에 다도체험도 할 수 있으며 역대 기능 보유자들의 생전활동 모습 등을 담은 사진전도 열린다.

무등산 인도박물관 뒷편에 위치한 운림제는 한옥과 너른 잔디마당, 부채 박물관 등을 갖춘 열린 문화공간으로 마당 곳곳에 시식·체험·시연·전시 공간들을 배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발표회를 즐기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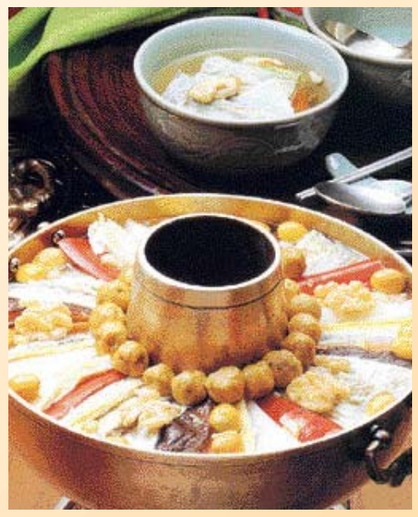
한복려 이사장은 "궁중음식이 일반 대중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궁중 상차림은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며 "궁중음식을 통해 우리 전통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5900. 무료 관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하찜



궁중보김치



신선로

5·18 30주년 기념 뮤지컬 '화려한 휴가'

영화와 다른 감동 광주서… 서울서… 관객맞이

뮤지컬 '화려한 휴가'의 출연진들. 〈메이 엔터테인먼트 제공〉

티켓 판매 시작… 내달 15~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6월 12~13일에는 국립 해오름극장서 전국화 무대

5·18 30주년 기념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지난 16일 티켓 판매를 개시하며 관객들과 만날 채비를 갖췄다.

8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 '화려한 휴가'는 오는 5월 15~19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6월 12일~13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특히 광주에 이어 19일 티켓 판매를 시작한 서울 공연은 광주에서 제작되는 다채로운 5·18 30주년 기념 공연 중 유일하게 서울 관객들을 만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5·18 전국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획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에 선정된 메이 엔터테인먼트가 송원대 엔터테인먼트학과와 산학 협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출발했다.

작품 제작을위해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 만났다. '블루 사이공'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등을 쓴 극작가 김정숙씨가 대본을 썼고 '황진이' 등을 연출한 권호성씨가 연출을 맡았다. 음악은 '청연'으로 대종상 음악상을 수상한 미하엘 슈타우다허가 맡아 '사랑한다는 말' 등 모두 40여곡을 작곡했다.

80년 5월을 배경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주인공 민우와 신애의 가슴 아픈 사랑과 민초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화려한 휴가'는 지난 1월 쇼케이스 무대를 거친 후 오디션을 진행, 주연 배우를 캐스팅했다.

남자 주인공 민우 역은 뮤지컬 '진짜 진짜 좋아해' 등에 출연한 최승열씨가 캐스팅됐으며 여주인공 신애 역에는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신인상을 수상하고 뮤지컬 '김종욱 찾기' 등에서 호연했던 전미도와 '소울 메이트', '지하철 1호선'의 손현정이 더블 캐스팅됐다. 또 감초 역할을 할 인봉 역으로는 '오디션', '미스 사이공' 등에 출연한 이승현씨가 출연한다.

한편 제작사측은 '화려한 휴가'의 전국 순회 공연과 해외 공연 등을 추진, 광주 대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시민추진위원'도 모집중이다. 1구좌당 5만원으로 추진위원이 되면 R석 티켓을 증정한다.

광주 공연 티켓 가격 5만원, 3만5000원, 1만 5000원(티켓 마루). 서울 공연 8만원, 6만원, 4만원(티켓파크). 문의 062-655-35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봄' 김유정 작품세계 체험

23일부터 춘천서 문학제 문학 현장 답사 등 다채

'봄봄', '동백꽃' 등 향토색 짙은 소설을 남기고 요절한 김유정(金裕貞·1908~1937년) 선생을 기리는 문학제가 23~25일 고향인 춘천시 신동면 증리 실레마을과 김유정문학촌 등지에서 열린다.

김유정기념사업회(이사장 전상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문학제에서는 23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학술발표회를 갖고 24일에는 김유정문학촌에서 산문백일장·김유정 소설 입체낭송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25일에는 소설 '봄봄'에 등장하는 '점순이'의 이미지를 닮은 여성을 찾는 이색행사와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기차를 타고 김유정의 삶과 작품세계를 들으며 김유정역까지 도착하는 '문학기행 열차'가 운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문학현장답사, 실레마을 닭싸움, 풍물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1908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실레마을에서 태어난 김유정 선생은 '동백꽃' 등의 근대 단편소설을 남기고 1937년 타계했다. 2002년 그의 생가터에 건립된 김유정문학촌에서는 매년 그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유정 산문 백일장, 김유정 소설 입체 낭송회, 문학현장답사 참가 문의는 033-261-465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